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 로 알려주세요.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마르 10,46-52)

이단 대책 세미나 주안에교회

주안에교회(담임목사 최 혁)가 '이단 대책 세미나'를 연다. 한선희 목사(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회장이) 강사로 참석한다. 세미나는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열린다.

- 세미나 일시, 주제, 장소는 다음과 같다.
- ▶ 5월 4일(수) 오후 7시 30분, 신사도운동I
- ▶ 5월 11일(수), 오후 7시 30분, 신사도운동II 이상 주안에교회 OC Chapel(235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 ▶ 5월 6일(금) 오후 7시 45분, 신사도운동I
- ▶ 5월 13일(금), 오후 7시 45분, 신사도운동II 이상 주안에교회 Valley Chapel(19541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주안에교회 측은 "이번 행사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많은 한인들의 참가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문의: (818) 363-5887

발달장애인 위한 '사랑의 마당축제'

남가주의 발달장애인들의 화합의 장인 제 37회 '사랑의 마당축제'가 5월 14일(토) 오전 10시, 사우스 엘몬테 소재 위터어 내로우스 공원(Whittier Narrows Recreation Area, 750 S. Santa Anita Ave., South El Monte, CA 91733)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는 사랑의 마당축제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미주복음방송과 해피비리지(KAVC 미주한인봉사단), 남가주비밀선교단에서 공동주관한다.

이 축제에는 18세 이전에 장애가 확인된 발달장애인, 장애인 가정, 자원봉사자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참가비는 4월 30일 이전 신청 시 5달러이며 그 다음 또는 당일 현장에서 신청할 경우는 10 달러다. 참가비에는 티셔츠와 주차 비용이 포함된다.

▶ 후원 및 자원봉사 문의: (213) 368-2630
▶ 참가 문의: (562) 229-0001, (714) 484-1190

지금으로부터 이천 년 전, 유대나라의 조그만 도시 예리고의 길가에 앉아 있던 거지 소경 바르티매오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놀랄만한 기적과 말씀으로 온 이스라엘을 떠들썩하게 하신 그분을 꼭 만나 뵙고 싶었던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선생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십시오."

조용히 하라는 주위 사람들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큰 소리로 주님을 부릅니다. 예수께서 그의 음성을 듣고 부르시자 겹옷을 챙길 생각도 없이 서둘러 예수께로 달려갑니다. 그는 분명하고도 확신에 찬 음성으로 자기의 소원을 예수께 청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예수께 매달림으로써 은혜를 받는 바르티매오의 믿음을 생각해 봅시다. 먼저 그의 끈덕진 부르짖음을 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지란 신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계시는 스승 예수님을 노상에서 함부로 불러대니, 주위 사람들의 입닥치라는 꾸지람은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의 불행을 예수께 호소하기로 오랫동안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부른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 편이라는 소문대로 자기를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또 그의 즉각적인 응답을 들 수 있습니다.

겹옷은 그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낮에는 의복이지만 밤에는 그의 잠자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렇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순간에 그에게는 아무 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들던 예수님이시지만 자기가 부탁만 하면 틀림없이 들어주리라 믿었기에 서슴없이 예수께 말씀드립니다. "제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자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가만히 반성해 봅시다. 우리는 말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세상의 영화나 재물에만 너무 눈이 어두워 있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구원이나 생명보다도 현세 사물에 더 열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영적 소경들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신 이야기에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천상 사물에 대하여 소경들인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신다는 암시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

우심을, 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라 우리 모두가 구원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릴 줄도 모르고 현세의 쾌락이나 행복에만 도취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후세의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얼마나 더 큰 것인가를 판단하지도 못하는 소경들입니다. 기껏해야 70, 80년 되는 인생을 잘 살기 위해 우리의 모든 정력과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수만 년 아니 영원한 그날을 위해서는 과연 얼마나 노력을 하였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경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행히도 예수님 덕분에 눈을 뜰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실 분, 우리를 부활시키어 천당 영광 속에 불러주실 분, 주님께 목청껏 소리칩시다.

"제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박명준 신부-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찬 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

숨은그림찾기 정답